

결제주기 T+1 단축과 대처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을 모래 주냐”라는 발언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이 언급되고 있다. 필자가 자본시장연구원에 재직 중이었던 2000년에도 거래일(T)+1 결제주기 단축이 시도됐다. 당시 우리의 결제주기가 T+2이었던 것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T+3으로, 우리보다 결제주기가 뒤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당시 증권관리위원회(SEC)에서, 일본 경우엔 대장성 산하 자본기구에, 서로 유사한 시기에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하는 작업이 시도됐다. 미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T+1 결제주기 도입을 2002년으로 정했다가 다시 연기를 거쳐 미국이 2004년 하반기로, 일본이 2003년 3월로, 목표를 변경했다. 이후 전개 상황을 보면, 한국에서 채권결제 T+1을 도입했지만, 주식은 종전 그대로이다. 반면 미국은 20년 이상이 걸려서 2024년 5월에 T+1 결제주기를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은 2019년 7월에야 비로써 T+2를 도입해 직전 결제주기를 하루 줄였다.

본래 결제주기의 단축은 주식거래 투자자의 현금 상환기일을 신속하게 하려는 데에 있기보다는 주식거래의 최종결과인 결제위험을 줄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거래일(T)로부터 결제일이 T+2이라고 가정하자. 이 기간에 갑자기 시장에 대폭락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주식매도 상대방인 매수자는 파산이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주식 매도자가 대금을 빨리 인수하고 주식양도를 늦춘다고 가정하자. 또한, 주식매수자는 주식을 빨리 받고 대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결제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어난 때 매도 증권 양도함과 동시에 거래대금을 받는 체계, 즉 ‘동시결제(DVP·delivery versus payment)’가 필요하다. 이런 동시결제 요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키면서 결제비용 절감의 효율화를 도모한 방식이 차감결제제도(netting system)이다. 차감결제는 거래상대방별로 동일종목에 대한 증권매도와 매수를 상계한 순포지션을 산정해 결제를 수행함에 따

라 결제 건수와 결제대금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결제방식이다.

미국이 T+1 결제주기 도입에 20년 이상 걸리면서 가능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한, 우리보다 선진 자본시장인 일본이야말로 T+1 결제주기 단축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미국은 금융중심지로 세계 각처로부터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자본·외환 시장으로서, 다른 나라 투자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일본이 결제주기 T+1 단축을 도입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일본과 다른 시간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거래시간 차이, 그리고 주식결제와 엔·달러 결제에 따르는 환전 시기다. 또 한국보다 더 높은 외국인 투자 비중, 그리고 국제간 결제에 따른 보관은행(custodian) 업무절차 관행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한국 경우도 일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는 T+1 결제주기 시기를 특정하지 말고 결제주기 단축문제를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기저 수집
서예진 (정치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 정치권은 40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개헌을 이뤄내지 못했다. 39년간 개헌안을 발의한 건 총 3차례(2018·2020·2026년) 뿐이다. 2018년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0년 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현행 헌법의 개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정치적 합의가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찬성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을 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항상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진영 간 이견이 생기면서 무산돼 왔으니, 이번에

는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하지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갑자기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면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107석)을 쥐고 있고, 현재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수정할 수도 없으니 우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럼에도 장대표는 9일 “이 대통령은 어물쩍만 얘기만 하고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결국 연임 빌드업 개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임기 연장 시나리오”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럼 장대표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정말 연임을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헌법 제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대다수 헌법학자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나서, 연임 조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조항 자체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고, 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대표의 주장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이자, 야권 지지자들을 향한 공포 마케팅이다. 이쯤되면 국민의힘도 솔직해져야 한다. ‘졸속 개헌’이라서 반대하는지, 아니면 한 중진 의원의 “이재명에게 시대의 영웅 날개를 달아주는데 어찌 찬성하느냐”는 발언이 솔직한 마음인지... 국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 (음 2월 2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패의 쓴잔을 마신다. 60년생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72년생 이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84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년생 여러 사람과 상의하세요. 61년생 작은 소원도 욕심을 두지 않으니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73년생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세요. 85년생 가정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50년생 잔병치레가 많을 때이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세요. 62년생 부모님께 문안 전 화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4년생 상복수가 있겠습니다. 86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1년생 치성을 드린 보람이 더욱 있겠습니다. 63년생 능력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만나대길하셨습니다. 87년생 주위 사람이 자기를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52년생 용기 있는 자만이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모든 조건이 좋으니 큰일을 해냅니다. 76년생 우연히 재물이 들어옵니다. 8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3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5년생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77년생 이 고비만 넘기면 만사가 더욱 좋아집니다. 89년생 부지런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54년생 더 가지려 말고 현재 것을 잘 간수하세요. 66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78년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90년생 큰돈이 지출될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55년생 재물이 쌓일 것입니다. 67년생 재물이 있습니다. 79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염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1년생 기회를 잃고 난 후 일을 피하니 허황할 것입니다.



56년생 성취될 듯하면서도 왠지 불길한 징조가 있습니다. 68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습니다. 80년생 여행은 될 수 있으면 떠나지 마세요. 92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57년생 감기 조심하고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69년생 많은 사람이 도우니 진정됩니다. 81년생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신수가 좋습니다.



58년생 너무 과격한 행동은 삼가세요. 70년생 몸에 작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82년생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94년생 마음이 답답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59년생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은 금물. 71년생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렸을 때 친구와 만나게 됩니다. 95년생 남을 돕는 것이 곧 귀하는 돕는 것입니다.



김상회의 四季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는데 몸속에 흑시 모를 문제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미리 대처하여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다. 건강검진의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 명리학을 통한 사주 펼쳐보기이다. 태어난 순간의 시간 정보를 여덟 글자로 풀어낸 것이니, 그 안에는 음양과 오행의 균형이 담겨 있다. 이 균형은 단지 성격이나 운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 어떤 기운에 치우쳐 있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그래서 사주는 몸과 마음의 특질을 미리 살펴보는데 지표 역할을 한다. 음양오행의 조화를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에 대입하여 해석한다. 타고난 기운의 균형을 통해 어떤 장기가 선천적으로 취약한지, 어떤 병에 걸리기 쉬운 기질인지를 읽어낸다.

위장은 토, 대장은 금, 췌장은 목, 소장은 화, 방광은 수의 기운으로 장기를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많고 적음, 서로 극하고 극을 당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장부가 상대적으로 약한지를 살핀다. 어떤 기운이 지나치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알면,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할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평소 소화기가 안 좋거나, 몸이 쉽게 붓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부위가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말하는 몸의 특질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주가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 몸이 어떤 기운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참고서가 되니 해석을 바탕으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정하면 큰 병으로 가는 길을 비켜 갈 수 있다. 사주와 건강검진은 한 방향으로 가는 목적을 가지니 몸이 아프고 나서야 어렵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6		3	1	
					7			
	4	9	1					6
		5		8				
	8		2	4			6	
			7			5		
7					9	8	1	
		4						
5	2		3	4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레코드를 증가하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2	9	1	1	8	8	2	9
2	9	8	2	8	9	1	1	6
1	1	8	6	2	9	9	8	2
8	1	9	8	1	2	2	6	9
2	9	6	1	9	2	8	1	
8	2	1	8	9	6	9	2	1
9	8	2	9	2	1	6	1	8
9	6	2	2	8	1	9	8	
1	8	1	9	6	8	2	9	2

1	9	8	2	9	2	6	8	1
2	9	6	8	1	8	2	9	1
2	8	1	1	6	9	2	8	9
1	9	8	1	6	8	9	2	9
8	8	9	1	9	2	1	2	6
6	2	1	9	2	8	8	1	9
9	1	2	1	8	1	9	6	8
8	6	8	9	2	9	1	1	2
9	1	2	6	8	1	9	2	8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